

법회안내

김로사(051)809-0326
초하루법회
신경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관음재법회 매월2일(음) 오전10시
인동기도 매월3일(음) 오전10시
전10시30분
3번째 회기도 매월 2월10일~14일(음) 오전10시30분
백운기도 매월 9월1일~7월15일(음) 오전10시30분

범배동 평원선원(02)584-1108
산중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인동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
지장참회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철야정진법회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전8시
가족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중앙대 대불전 동문법회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3시

계룡산 지광사(042)822-9219
산중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화엄법회 매월7일(음) 오전10시
지장참회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선지선배 매월15일(음) 오전6시
교양대학 매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거사법회 매주 첫째, 셋째, 토요일 오전10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7시
학생법회 매주 토요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속초 원각사(0392)33-3836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교불학원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
대불학원회 매주 목요일 오후5시
장년부법회 매주 일요일 저녁7시
달미회 매월14, 24일 오후6시
금강회 매월10일(양) 저녁7시
거사법회 매월 둘째주 수요일 저녁7시
군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3시
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최근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금품접수 기록장이 사회에 충격을 준데 이어, 소녀가장인 제지에게 보내 온 거액의 후원금을 가로챈 중학교 교사가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사교육비가 늘어나 가계가 휘청거린다는 아우성 속에서 교육방송 뇌물사건 등 연일 교육관련 비리가 보도되고 있는 것은 이 나라의 시표가 될 스승이 사라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인천(人天)의 스승인 부처님과 조사들의 말씀을 통해 철스승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편집자 주>

■ 스승은 다섯가지 일로 제자를 축출해 여기저기 가르쳐야 한다. 다섯가지란 학문을 배우게 하며, 지극한 기예(技藝)를 가르치며, 배움에 민첩케 하며, 선도(善道)를 가지고 인도하며, 현명한 친구를 따르게 함이다.

■ 제자에게 다음 같은 다섯가지 일이 있을 때는 꾸짖어 가르쳐 주어야 한다. 첫째는 신심이 없음이요, 둘째는 게으름이요, 셋째는 거친 말이요, 넷째는 부끄러움이 없음이요, 다섯째는 악지식(惡知識)과 가까이 지남이다. 다만 다섯가지 일종의 하나가 있는 경우라도 다 꾸짖어 가르쳐야 한다.

■ 스승은 공양과 공경을 받고서 다음의 다섯가지 일로 보답하는데, 속히 가르

쳐서 때를 놓치지 않게 하고, 다 가르쳐서 모자람이 없게 하며, 제자가 자신을 능가함에 질투하지 않으며, 엄한 스승과 착한 벗을 소개해 주며, 임중에 이르러 재물을 주는 것이다. <우바세경>

■ 내가 길을 가르쳐 준 다음에는 각자의 행동에 달려 있다. 나는 다만 그 길을 가르쳐 줄 뿐이고, 그들의 행을 보고 '마침내 너는 번뇌가 없어지고 열반에 도달하였다'라고 인정할 때를 기다린다.

■ 스승은 공양과 공경을 받고서 다음의 다섯가지 일로 보답하는데, 속히 가르

침스승 善道로 이끌어 공경에 보답

야 한다. 첫째는 불법에 의지해 조어(調御) 함이요, 둘째는 그 배우지 못한 것을 가르침이요, 셋째는 그 질투하는 바를 따라 말문을 잘 풀어줌이요, 넷째는 그 선지식임을 보여줌이요, 다섯째는 자기의 아는 것을 다 가르쳐 아끼지 않음이다. <장야합경>

■ 선지식이라는 사람은 곧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것이니 교화하여 보살계를 배우게 하기 때문이다. 선지식은 곧 인도자가 되는 것이니 교화하여 피안의 길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선지식은 곧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니 모든 번뇌의 근심을

치료하기 때문이다. <대방광불화엄경>

■ 다섯가지의 꾸짖는 법이 있으니 함께 말하지 않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가려서 가르쳐 주지 않음, 그가 바치는 것을 받지 않음, 착한 이를 칭찬하지 않음, 의지가 되어주지 않음이라.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집사>

■ 선지식의 힘은 범행(範行; 청정한 행위)이 전부이다.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집사>

■ 내가 말한 모든 법이 곧 너희들의 스승이니 높이 받들어 모시고 잘 보호하여 부지런히 닦아 익혀 잊지 않도록 하라.

<대반열반경>

■ 큰 스승을 공양하고자 하면 부모님께 공양하라. 부모가 바로 위대한 스승이니라.

<법역집야합경>

무진장스님 불교입문 강의

'뽀뽀에서 구시나가기까지'
조계종 국청회(회장 김일성)는 부처님의 탄신과 출가, 성도 그리고 열반까지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불교입문강좌를 마련했다. 초심자들을 위한 이번 강좌는 4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열리며 9월26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열린다. 강의는 전 조계종 포교원장 무진장 스님이 진행. 수강료 월 3만원. (02)730-1250

비구니스님과 가족수련

중앙승가대학교 비구니수행관(관장 본각스님)에서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로 제3회 여름가족수련법회를 연다. 사진은 지난해 수련법회 장면.



내 나이 35세였던 1977년 8월 15일 새벽, 경북대병원 간호실에서 무심코 들여다본 나의 병상일지(차트)에서 며칠 전 실시한 간 조직검사 결과보고서를 보게 되었다. 영문으로 "간세포가 부풀어 있으며, 섬유질화 되어가고 있다"고. 심상치않은 느낌이어서 생화학실에 문의하니 그게 "간경화의 초기현상"이라고 설명해주었다.

그해 봄, 나의 부친께서 3일간의 끊임없는 각혈과 하혈로 병상을 피로 풀들이며 숨을 거두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님의 생명을 앗간 그 간경화를 물려받게 되다니! 어떻게 할 것인가? 최선의 해결방법은 자살이었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주치의는 나를 찾아와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를 잡는 것이었다. 이 험한 모습들을 지우고 다시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일을 되풀이하다보니 점차 익숙해지는 것이었다.

아내는 관세음보살님 사진을 모셔놓고 매일 조석으로 해일 수 없이 절을 했다. 그리고 주말마다 구미 금오산 정사에 있는 약사암을 찾아 밤새워 절하면서 나의 구원을 빌었다.

투병 3년 가까이 된 겨울 날, 눈이 유난히도 많이 내려 한치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밤길에 발길 닿는대로 갔더니 절이었고, 밤새도록 예불 올리고 새벽녘 잠시 눈을 붙였을 때, 그 거룩한 모습의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네 남편은 이제 다 낫았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제 다 낫았으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시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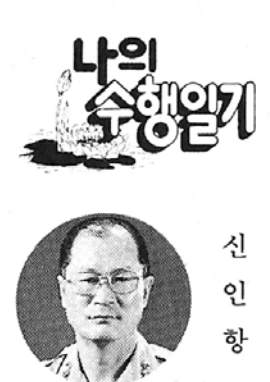
늘라 일어나니 법당 부처님 이 산처럼 크게 보이며, 온몸에 전율이 오고 힘이 솟더라.

이 무렵 나는 살이 쪼기 시작했다. 나의 간질환을 최초로 확인한 이종기박사(당시 대구 국군통합병원 내과부장·현재 파티마병원 근무)를 찾았다. 이박사는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그는 "인간 슬림이요. 나는 회생불가라 생각했었어"라고 말했고, 나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믿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체험한 고행은 나를 각성시켜 불법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준비기간이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느끼는 삶과 죽음에 대한 명상. 그로 인해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덕분에 살이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날마다 정진을 쉬지 않고 있다.

매주 교내 충청호국사에서 법회와 예불, 참선정진을 하고 휴가 때는 빠짐없이 전국의 명산대찰을 찾아 순례를 떠난다.

<육곡제3사관학교 교수·대령>



신인항

신행수첩

개회한다. 유행문화재 마애석불 관음보살상이 봉안된 유서 깊은 도량 보타사에서 실시되는 이번 가족수련법회는 수행관의 비구니 스님들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특징.

수련기간 중에는 종범스님(도서관장), 종석스님(불교학과장), 본각스님(보타사 주지)의 특강도 마련한다. 12일 오후6시에 입재해 13일 오후9시에 회향하는 이번 가족 수련법회에 동참할 불자가족은 수행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02)923-4067

선암사 어린이 숲속학교

부산 선암사(주지 해민)는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6월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12시 명상교실, 연극교실, 창작법회, 주말농장, 진흙놀이, 별자리 이야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숲속학교를 연다. (051)803-7573

자원봉사 지도자양성 강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산하 교양대학에서는 4, 5월 조계사 강의실에서 불교 자원봉사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기초 강좌를 연다.

불교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대한 일화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자원봉사의 이론과 실제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자원봉사 모집·훈련·관리 △자원봉사 관리 사례 발표 등의 내용을 이재택(좋은 아버지 되기 모임) 이성복(대구 자원봉사센터 소장)씨가 각각 강의한다. (02)723-5101

“마음에 병 없어야 진짜 건강”

가족합심 관음정진 3년만에 간경화 치료

황소부대장병들 “법당서 예불 올렸으면...”

“최소 2백여명이 비바람을 피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부처님을 모시고, 군생활에 충실하며 불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육군 황소부대 이준희 지도부사를 비롯한 장병부사들은 수계식이 나 법회를 병행하여 해도 30명 남짓 예불을 올릴수 있는 협소한 공간 때문에 돌아가는 불자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있다.

부사에 동참하는 공덕은 이루 헤아릴수 없고 업장이 두터운 사람이라도 성의껏 동참하면 업장하에 충실하며 불행을 실천할 수 있다고 부처님은 가르쳤다.

청정심을 길러 제대후에도 계속 정진하는 재가 불자가 되기를 원하는 장병들에게 많은 불자들이 보시 정신을 발휘 동참, 회향하는 인연을 지어보자. (0361)241-6110

승광사복지관 수상캠프

불교중앙교원 승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교스님)은 22일부터 23일까지 정남곡성 유종 관광농원에서 97여명 수상캠프 '침범침범 여름학교'를 개최한다.

저소득층 자녀 5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는 '야간 담력훈련' '별밤축제' '침범침범 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극기훈련을 통해 어린이 인성 개발과 인내심 함양을 위한 취지로 마련. (062)941-8248

가족합심 관음정진 3년만에 간경화 치료

고치고 못고치는 것도 신의 뜻이다. 오로지 신에게 구원을 기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신자였다.

그 이튿날 아침 병상에서 열주를 들고 "병이 들었음은 마음이 병을 만들었음이며, 마음에 병이 없으면 병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읊고있을 때 원목이 들어와서 나를 찾았다. 그리고 열주를 들고 있는 나를 보더니 잘못 찾아왔으면서 도로 나가는 것이었다. 주치의가 내게 보냈을 것이다. 여러가지 생각끝에 자살을 포기했다.

나는 관세음보살님께서 내 간의 혈고 병든 곳을 자비로운 손길로 뜯어내고, 새 살을 돌아나게 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훈련을 하였다. 서거나, 앓거나, 늙거나, 항상 바른 자세로 오로지 내 간을 재생시키시는 관세음보살님을 그려보며 정근을 하였다.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관세음보살님을 외우면서도 머릿속에는 어느새 내가 죽는 모습, 공사장에서 잡부 일을 하는 찌든 내 아내,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졸라대는 남부한 어린 자식들 모습이 자리로 마련. (062)941-8248

이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는 텅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체험한 고행은 나를 각성시켜 불법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준비기간이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느끼는 삶과 죽음에 대한 명상. 그로 인해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덕분에 살이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날마다 정진을 쉬지 않고 있다.

매주 교내 충청호국사에서 법회와 예불, 참선정진을 하고 휴가 때는 빠짐없이 전국의 명산대찰을 찾아 순례를 떠난다.

<육곡제3사관학교 교수·대령>

신불교의 전체 모습을 조감할 수 있는 100가지의 항목을 선정하여, 선사(禪師)·선종사·선의 각 종파·문헌·주요 공안·시상·문화 등을 일목요연하게 조망한다.

신국판/전2권/각 8,000원

100문 100답 선불교 강좌편

선언의 기원과 선종의 역사, 공안·화두·총림·깨달음·청구·법맥·방과 할·좌선의 방법·선어록·오도송·간화선과 묵조선 등 선의 중요개념, 입제종·조동종을 비롯한 각 종파, 송·명대의 선·현대 중국의 선·일본의 선·서양의 선·한국의 선·현대의 선 등 선의 중요한 흐름, 달마를 비롯해 예능·백장·마조·입제 등 중국선의 가장으로부터 일본의 여러 선사들은 물론 우리의 성철 선사에 이르기까지 선의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온다.

대원정사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편집부: (02)752-7047, 영인부: (02)757-6717

학인모집안내

21세기 불교 최고지도자 양성기관인 한국승가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 래

- 접수기간: 7월 1일 ~ 8월 15일(후기)
- 입학자격: ① 대학이상 졸업자 ② 불교 교양대학 졸업자 ③ 불교정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자
- 전공과목: ① 무량의경 ② 묘법연화경 ③ 관, 보현 보살 행법경 ④ 기타, 교양특강
- 보급구분: ① 출강반(부산): 수·금요일 등교 ② 통신반(전국): 넷째 일요일 등교
- 교육기간: 2년(4학기) 출강, 통신반 동일
- 졸업특전: ① 졸업증서 수여 ② 오종법사 자격증 수여 ③ 법화경연구소 학술위원 위촉 ④ 교양대(강원) 개원시 지원

한국승가대학원
책임교수 최광영(공덕)
(우)701-600 대구광역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문의전화
대구강의실: (053)952-8711
부산강의실: (051)633-6224
교수직통: 017-501-8711

※ 자세한 입학안내서는 우편으로 청구하시면 보내드립니다.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단위조직 구독 신청

단위조직명	연락처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제주지사	064-55-9800
강릉지사	0391-651-9317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대전지사	042-625-1080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66-72-0078
안산지사	0345-408-0961
진주지사	0591-747-0106